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2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4월 06일 / 등록번호 영등포리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지도 / 디자인 인쇄소 북원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호텔앤리조트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4.06 / 제2호

MATCH PREVIEW

‘시동 걸린’ 인천,
4월 첫 홈경기에서 승리 다짐
‘반등’ 노리는 인천,
대구 상대로 2연승 도전한다
‘12년 만의 재회’ 감해,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인천

BLUEMAN INTERVIEW

‘돌아온 측면의 열쇠’ 김성민,
고향 같은 팀 인천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

IUFC REPORTER REPORT

코리아컵 우승에 재도전하는 인천,
인천의 코리아컵 역사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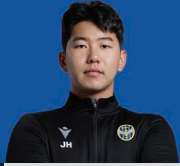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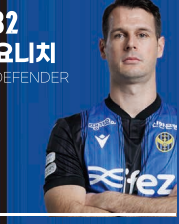
ROOKIE INTERVIEW

인천의 ‘슈퍼 루키’ 박승호,
팬분들의 목소리가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해줬다





INCHEON UNITED 2024 SQUA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헌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8 천성훈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7 김보섭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광주	인천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인천	제주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인천	대구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21일(일) 14:00		강원	인천		춘천송암
09R	04월 28일(일) 14:00		포항	인천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인천	전북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김천	인천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인천	서울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대전	인천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인천	광주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인천	울산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수원FC	인천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전북	인천		전주월드컵
18R	06월 23일(일) 18:00		인천	포항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제주	인천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인천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인천	김천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대구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일) 19:00		광주	인천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21일(일) 19:00		인천	수원FC		인천축구전용
25R	07월 27일(토) 19:30		인천	서울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10일(토) 19:30		제주	인천		제주월드컵
27R	08월 17일(토) 19:30		대전	인천		대전월드컵
28R	08월 24일(토) 19:30		인천	전북		인천축구전용
29R	08월 31일(토) 19:30		대구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30R	09월 15일(일) 16:30		김천	인천		김천종합
31R	09월 22일(일) 19:00		인천	울산		인천축구전용
32R	09월 27일(금) 19:30		포항	인천		포항스틸야드
33R	10월 06일(일) 15:00		인천	강원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JEJU PREVIEW

‘시동 걸린’ 인천, 4월 첫 홈경기에서 승리 다짐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의 4월 홈경기 첫 손님은 제주유나이티드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6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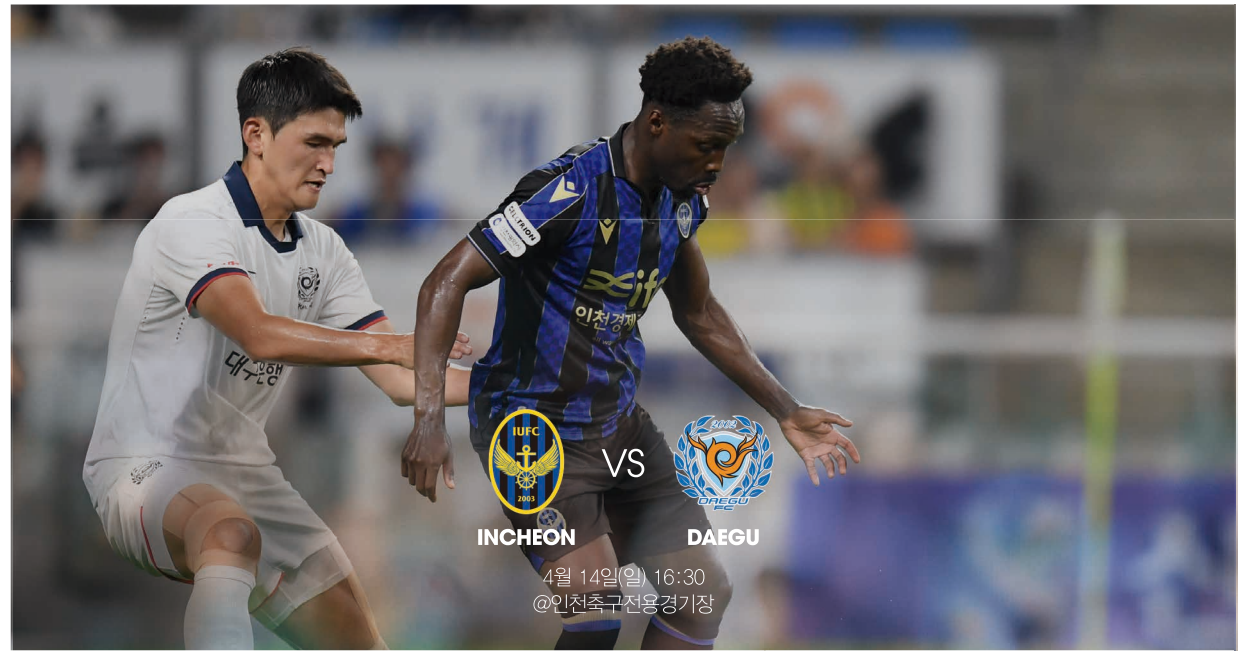
인천은 지난 3라운드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둔데 이어 4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전고를 올렸다. 울산 수비의 치명적인 실수를 무고사가 놓치지 않으며, 인천의 올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한 데에 이어, 박승호와의 합작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뒤이어 인천은 울산에 재역전을 허용했지만, 이후 이명주가 PK를 얻어내고 무고사가 이를 깔끔하게 성공하며 3-3으로 균형을 맞추었고,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종료되었다. 대전전에서는 좋은 경기력 속 시즌 첫 승리를 거두는 데에 성공했다. ‘체르소-박승호’ 조합이 날카로웠다. 이 조합은 울산전 마지막 역습에서는 아쉽게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대전전에서는 비슷한 과정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여기에 홍시후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승리에 쐈기를 박았다. 지난 2라운드까지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득점만 없었던 인천은, 까다로웠던 울산 원정에서 다득점에 성공하며 득점 갈증을 제대로 해소했다. 이후 대전과의 홈경기에서는 2-0 완승을 거두며 좋은 경기 결과까지 가져왔다. 특히 이 두 경기에서 무고사의 멀티골을 포함 총 5득점을 터뜨리며 골 맛을 제대로 본 것이 고무적이다.

제주는 작년 시즌 개막 후 5경기 무승을 기록했다. 이후 6라운드에서 15라운드까지는, 단 1패만을 적립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직후 이

어진 10경기 연속 무승으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후반기에는 단 2승만을 거두며 9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에 제주는 올 시즌 김학범 감독 선임과 함께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제주는 이번 시즌 개막 후 두 경기에서 4득점 무패를 기록하며 작년과 정반대의 출발을 이루었다. 제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굵직한 영입이 없었다. 김오규의 이적, 김태환(전 수원삼성) 영입, 김봉수의 군입대를 제외하면 큰 방출도 없었다. 서진수, 진성욱, 유리 조나탄 등의 기존 주축 선수들을 필두로, 제주는 무난한 경기를 펼치며 4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으로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다.

인천은 제주에 리그 기준 통산 16승 18무 15패의 대등한 상대 전적을 갖고 있다. 제주가 2부리그였던 2020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동안의 상대전적은 6승 4무 7패로, 이 역시 대등하다. 그러나 작년만 놓고 보면 우위이다. 인천은 제주와의 직전 세 차례 맞대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했다.

인천은 이번 시즌 초반 승리가 절실하다. 작년과 달리 첫 4경기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득점포까지 가동되며 여열을 마쳤다. 4월의 첫 경기이자 올해의 첫 주중 경기인 광주 원정 후 3일 뒤에 치러지는 홈 제주전에서, 인천은 승리로 산뜻한 4월을 다짐한다.



vs DAEGU PREVIEW

‘반등’ 노리는 인천, 대구 상대로 2연승 도전한다

글 = 이지영 UTD기자 (easy0_@naver.com)

점차 리그 안정기에 접어든 4월, 인천이 벚꽃과 함께 네 번째로 맞이할 손님은 대구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오는 4월 14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빅 4’를 꿈꾸며 힘차게 출발한 지난 3월, 인천은 4경기 1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 5점을 쌓았다. 지난 3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서 3득점과, 그리고 4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2득점이 폭발하며 아슬아슬했던 시즌 초반과 달리 한결 강화된 경기력을 보인 인천이지만, 4경기 4실점을 헌납하며 수비에서 아쉬운 면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 인천에게는 부상 선수들의 조속한 복귀와 기존 수비진의 분발을 통한 수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전 공격수 무고사를 필두로 공격진의 더욱 견고한 공격력 역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에게 A매치 휴식기는 반가운 일이었다. 공수 부문 재정비를 통해 고전했던 휴식이 이전의 경기력을 씻어낸 인천은 대전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인천이 좋은 흐름을 이어 다가오는 4월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상황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2022시즌 강등의 문턱에서 벗어난 대구는 이제 아시아 무대를 놓고 경쟁하는 팀으로 발돋움했다. 대구는 지난 시즌 아시아 무대 진출권은 놓쳤지만, 꾸준히 파이널 A에서 순위권 다름을 보였다. 매년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2024 시즌 개막 전 높은 기대를 받았던 대구지만, 3월 경기에서 주춤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비라인을 유지하다가 빠른 역습으로 빈틈을 노리는 대구의 ‘선수비 후역습’을 조심해야 한다. 부상에서 복귀한 세징야를 비롯한 공격진의 역습은 인천의 골문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에, 인천 수비진의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지난 시즌, 인천은 대구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하며 최종 5위로 리그를 마무리했다. 통산 전적 19승 21무 13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천이지만, 직전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에 인천이 지난 경기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과 대구, 두 팀은 모두 ‘역습’에 강하다. 지난해 완벽한 역습으로 울산과 요코하마를 잡은 인천과 일명 ‘달걀 축구’라고 불리우며 거듭된 진화로 완성도가 높아진 대구의 역습 축구. 공통 분모를 지닌 두 팀이 경기를 어떤 스타일로 풀어 나갈지 또한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vs GIMHAE PREVIEW

‘12년 만의 재회’ 김해,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인천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인천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첫 일정은 17일 오후 7시 김해시청축구단과의 홈 경기이다.

K3리그 소속인 김해는 프로 구단이 아니기에 인천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세미프로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저력을 입증한 팀이기도 하다. K3리그가 개편된 이후 치러진 2020년 초대 시즌에 첫 우승을 거머쥔 팀이고, 작년에 리그 3위에 올랐다. 2021년에는 코리아컵에서 프로 구단인 부천을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2024시즌을 앞두고 김해는 2017년부터 팀을 이끌었던 윤성호 감독과 작별하고, 대신 손현준 감독을 선임했다. 새 감독이 오면서 김해는 스쿼드에도 큰 변화를 줬는데, 지난 시즌 화성FC의 K3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양준모, 정현식, 신영준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이어서 금교진, 조우진 등까지 팀에 합류하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이 대거 수혈됐다. 주요 포지션에는 베테랑이 많지만, 소수의 베테랑을 제외하면 대체로 젊은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신구 조화가 잘 이뤄진 선수단을 구성했다.

김해 선수단 내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으로 표건희가 있다. 인천의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뒤 2년간 인천에서도 활약했던 표건희는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김해에 합류했다. 양준모와 함께 주전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 표건희는 왕성한 활동량과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킥, 조율에 능한 양준모를 보조해주고 있다. 인천과 김해가 벌이는 중원 다툼은 이 경기를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김해는 인천과 동일하게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김해는 골키퍼 및 센터백을 끌어올리면서 높은 지역에서 전개를 주도하며, 측면 및 전방에 순간적으로 많은 인원을 포진시켜 강한 전방압박을 걸고 찾는 경향을 유도한다. 인천과 김해는 모두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을 보이지만, 인천이 안정적인 전술을 추구한다면 김해는 포메이션의 틀을 자주 깨면서 변칙과 혼란을 만드는 팀이다. 김해가 만들어내는 변칙은 결과적으로 측면에서 주로 효과를 보였다. 그렇기에 양 팀의 경기는 측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인천의 김해전 역대 전적은 1전 1승으로, 2012년에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만나 3-0 승리를 거뒀다. 좋은 기억이 있는 상대지만, 12년 사이 서로 전력에 큰 변화가 있었기에 방심하지 말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천은 과거 코리아컵에서 하위 리그 팀을 상대로 큰 폭의 로테이션을 선택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다. 단판으로 이뤄지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투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인천이 확연히 앞서가기에,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돌아온 측면의 열쇠’ 김성민 고향 같은 팀 인천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2022년 여름, 혜성같이 등장해서 팀의 날개를 책임진 유망주가 있었다. 바로 인천의 유소년 시스템을 거쳐 프로로 올라온 김성민이다.

1년간 잠시 인천을 떠났던 김성민은 더욱 강한 모습으로, 성공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팀에 복귀했다. 복귀하자마자 출전 기회를 잡은 그는 빠른 스피드, 적극적인 돌파, 그리고 집중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팬들에게 확실히 어필했다.

UTD기자단은 시즌 초에 맹활약을 보여준 김성민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스로 선택한 김포 임대, 도약의 기회를 만나다

2022년 인천에 입단한 김성민은 첫 시즌을 마치고 지난해 김포FC로 임대를 떠났다. 김성민은 김포 임대 결정에 대해 “구단이나 감독님이 먼저 임대를 제의하지는 않았다. 첫 시즌을 마친 뒤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 경험을 쌓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임대 이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선수로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떠난 김포 임대에서 김성민은 주전 선수로 활약했다. 김성민은 “김포에서 경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원래 공격수 출신이었기에 수비수로 나설 때 수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김포 고정은 감독님께서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김포가 작년 리그 최소 실점 팀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정신적으로도 한 시즌을 꼭 소화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포 임대 시절을 회상했다.

김포 임대 생활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지를 물었다. 김성민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다. 임대를 떠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지만 공격포인트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들어 10점을 뺐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인천, 재계약은 정말 쉬운 결정

김성민은 김포에서 뛰던 시절에도 인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김포 경기가 끝난 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넘어와서 경기를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인천이 본인에게 어떤 팀이냐고 묻자 김성민은 “유소년 시절부터 함께 해온 팀이고, 서포터즈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인천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느낀다. 인천이 정말 좋다”고 답했다.

1년 만에 인천으로 복귀한 김성민은 곧바로 태극 치앙마이에서 펼쳐진 1차 전지훈련에 참여했다. 돌아온 팀에 적응은 빠르게 됐냐는 질문에 김성민은 “워낙 인천이라는 팀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선수, 코칭스태프까지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팀이어서 적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팀의 변화점에 대해서는 “팀이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환경도 훨씬 좋아져서 바뀐 여건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시즌 초 경기에서 김성민은 경쾌하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팬들에게 호평받았다. 전지훈련에서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묻자 김성민은 “전지훈련에서는 팀의 색깔, 방향성을 보고 그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적으로는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기였다”고 답했다.

김성민이 인천을 떠난 사이 인천에는 어린 신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특히 박승호, 최우진 등은 지난 시즌 막판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후배들과의 관계에 대해 김성민은 “후배들이 워낙 밝고 착해서 거리낌 없이 제게 다가와줬다.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아서 후배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1차 전지훈련 당시 김성민은 신인 이가람, 김훈과 함께 산책하면서 조언해주는 유튜브 콘텐츠를 찍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평소에도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냐고 묻자 김성민은 “원래 조언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조언을 할 때는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무엇보다도 조금해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시즌은 길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몸, 정신이 준비가 되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고 밝혔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 김성민은 인천과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김성민은 “김포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시점에서 인천과의 계약이 1년 남아있었다. 몇몇 팀에서 제안이 왔지만, 저는 임대를 마치고 돌아오면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인천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팀의 제안은 생각조차 안 했고 구단에서 재계약을 제안해 주셔서 수락했다. 인천과 재계약하는 결정은 정말 쉬웠다”고 강조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겠다

2024시즌 초반 인천은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서 스쿼드가 얇아지는 위기를 맞았다.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냐고 묻자 김성민은 “부담감보다는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감독님, 코칭스태프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다. 한편으로는 그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팀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위기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찾아온 기회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인천에서 왕백과 왕어를 오가며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했다. 심지어 좌측, 우측도 가리지 않고 측면 전 지역을 소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김성민은 “경기장에 나갈 수 있다면 어떤 포지션이든 다 할 수 있다. 감독님이 원하는 전술에 선수가 적응해야 하고, 그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경기를 뛰는 그 자체에 감사해서 특별히 선호하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잦은 포지션 변화에 혼란은 없냐고 묻자 김성민은 “처음에는 자리를 옮길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감독님 입장에서든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가 한 말대로 김성민은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김성민은 “경기장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나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특히 공격수로 뛴다면 위치에 맞게 공격포인트를 기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팀의 승리를 이끌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공격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다. 바로 3월 10일에 치른 2라운드 FC서울 원정 경기가 끝난 뒤 김성민이 자신에게 온 기회를 복귀하고 이범수 골키퍼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다. 김성민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 물론 스스로 경기를 다시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의 평가도 중요하다. 저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면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선수여도, 팬이어도 잘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더 발전하자, 받아들이는 생각을 한다”고 피드백 장면을 설명했다.

팬들 사이에서 발전했다는 평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자 김성민은 “팬분들은 제가 임대를 마치고 온 후의 모습을 보는 입장이고, 발전했다고 말씀해주시면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감사한 마음에 더해서 계속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

인천은 시즌 초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도 함께 남겼다. 김성민은 시즌 목표에 대해 “감독님도 얘기하셨듯이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 나이가 실점이 적은 팀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개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선 큰 부상 없이 꼭 1년을 소화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잡은 목표는 20경기 출전이고, 거기에서 공격포인트 5개를 올리고 싶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성민은 “시즌이 끝났을 때 김성민은 꼭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대에서 복귀해서 다시 인천 유니폼을 입고 뛰는 중인데 매일 상상하고 꿈꾸면 장면이 현실로 다가와서 너무 기쁘다. 돌아왔을 때도 팬분들이 반겨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팬분들의 응원에서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또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팀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저희도 열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수, 코칭스태프를 넘어 팬까지 한 마음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일정에 돌입한다.

이전까지 'FA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코리아컵은 올해 초 현 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새 역사를 열게 됐다. 코리아컵은 1996년부터 시작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컵 대회로, 프로 구단을 넘어 세미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까지 한곳에 모여 한국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이다.

코리아컵에서 우승하는 팀은 K리그 순위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혹은 AFC 챔피언스리그 2 대회 진출권을 얻는다.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아컵 우승은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인천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코리아컵 우승에 올해도 다시 도전한다. 인천은 4월 17일 김해시청축구단을 상대로 2024시즌 코리아컵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코리아컵 경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 인천이 코리아컵 우승에 도전해왔던 역사를 독자들과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2006년, 처음으로 밟은 4강 고지

2005시즌 K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둔 인천은 순식간에 주목받는 강

호로 도약하였다. 아쉽게도 그 돌풍을 2006시즌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코리아컵에서는 창단 후 처음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32강부터 대회에 참가한 인천의 첫 상대는 당시 내셔널리그 소속이었던 이천현멜이었다. 임종용, 김학철, 아가치, 최효진 등 주전급 선수 사이에 후보 자원을 적절히 섞어서 나선 인천은 후반 23분 최효진의 선제 득점, 셀미르의 후반 35분 빠기 득점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16강에서 인천은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인 전북현대를 만났다. 전북과의 경기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치열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인천은 골문을 뚫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북의 권순태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반대로 전북도 인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정규 시간 내에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로 넘어갔고, 승부차기에서 전북의 1번 키커 제칼로가 실축하는 등 부진이 겹치면서 4-3으로 전북을 꺾었다.

8강에 진출한 인천은 호남대학교를 상대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대학교 팀도 코리아컵에 출전할 수 있었기에 나온 재미있는 그림이었다. 인천은 전반 17분 김치우가 빠르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지만 호남대 이성규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면서 생각보다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힘든 경기였지만 후반 27분 최효진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인천은 창단 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 인천이 만난 상대는 전남드래곤즈였다. 결승이라는 고지가 눈앞에 보였기에 두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전북전과 마찬가지로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장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끝에 승부차기까지 넘어갔고, 양 팀은 성공과 실수를 반복하며 긴장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7번째 키커까지 순서가 넘어간 상황에서 인천의 바조가 실축했고, 전남 양상민은 골을 성공시키면서 인천은 결승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07년, 2년 연속으로 마주한 전남과의 악연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인천은 다시 코리아컵 우승을 목표로 대회에 도전했다. 26강에서 내셔널리그 소속인 대전한수원(현 K3리그 경주한수원)을 만난 인천은 첫 경기부터 노종건, 김상록, 그리고 방승환의 2골을 앞세워 4-0 대승을 거뒀다.

첫 경기부터 좋은 흐름을 탄 인천은 16강에서 대구FC를 만났다. 대구는 경기 초반 페널티킥을 획득하여 먼저 앞서 나갔지만, 후반에 인천이 빠르게 몰아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후반 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상록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라간이 역전골까지 넣었다. 이어서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박재현까지 득점을 신고하며 인천은 대역전골을 펼쳤다. 경기 막판에 대구 에닝요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인천은 우세를 유지하여 3-2로 승리했다.

8강에 진출한 인천은 라이벌 FC서울과 마주하였다. 서울은 오랜 공백에서 복귀한 박주영을 내세워 공격을 전개했으나 김이섭 골키퍼를 중심으로 한 인천 수비진이 탄탄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당시 인천 소속이었던 데얀이 전반 36분 선제 득점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어서 교체로 투입된 박재현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득점을 기록해 '슈퍼 조커'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은 막판에 김치곤이 한 골을 따라잡았으나, 끝내 인천이 2-1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인천의 4강 상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무대에서 만났던 전남이었다. 그 전해의 아픔이 있었기에 인천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우며 경기에 임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인천에 최악의 악몽으로 남고 말았다. 리그에서 이미 판정 문제를 겪으며 예민해져 있던 인천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고, 이른 실점을 당한 후 경기 분위기가 거칠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전반 16분 방승환이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격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경기 종료 후 1번 출전정지를 받았다. 결국 인천은 0-2로 패배했고, 또다시 전남에 발목이 잡혀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 기적 같은 돌풍과 창단 첫 결승전 진출

2015시즌을 시작하기 전 겨울은 인천 입장에서 정말 추운 시기였다.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어려운 여건에서 시즌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된 후 인천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반전을 썼다. 특히 코리아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천은 32강에서 K리그2의 부천FC1995를 만나면서 대회에 진입했다. 2005년 이후 10년만에 치러진 032 더비에서 인천은 경기가 시작된 지 4분만에 케빈의 선제 득점으로 빠르게 앞서 나갔다. 경기를 주도하던 인천은 후반에 '골 넣는 수비수' 김진환이 추가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여유롭게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 오른 인천은 내셔널리그 소속 천안시청축구단(현 K리그2 천안시FC)과 겨루게 됐다. 전력 차이가 확실했던 두 팀이지만, 천안이 예상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천은 고전했다. 후반 막판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또 한 번 김진환이 영웅으로 나섰다. 후반 39분 조수철의 도움을 받아 결승포를 터뜨린 김진환은 대회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며 팀을 8강까지 끌어올렸다.

인천은 8강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마주쳤다. 양 팀은 서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연장이 시작되자마자 인천 권완구가 득점하면서 승부의 균형을 깨뜨렸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 인천은 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견제하다 막판에 힘을 쏟아부었고, 김도혁까지 추가 득점을 올리며 2-0 승리를 거뒀다.

제주를 꺾은 뒤 인천이 4강에서 만난 상대는 오랜 악연이었던 전남이다. 인천은 제주전에 이어 이번에도 정규시간 내에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연장전에 윤상호가 그림 같은 중거리 슈트로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막판에 케빈이 점수 차를 벌리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연장전 2-0 승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덤으로 4강까지 모든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전남과의 악연도 청산했다.

창단 후 첫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한 인천은 '숙명의 라이벌' 서울과 우승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결승을 앞둔 인천은 계약상의 이유로 김동석, 김원식이 친정팀 서울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부상자도 많았다. 심지어 공격수 김인성이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강행할 정도였다. 인천은 전반에 서울 다카하기에게 선제 득점을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지만, 교체로 투입된 이효균이 후반 27분 멋진 터닝 슈트로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 막판까지 인천은 경기를 뒤집고자 분전했으나 결국 체력적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막판에 2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웃지 못했지만, 2015년 코리아컵에서 인천이 보여준 여정은 인천 팬들에게 충분한 자랑거리가 됐다.



2023년, 온갖 악재와 맞서야 했던 4강 일정

2015년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인천은 그 뒤에도 노력해왔지만, 코리아컵에서 한동안 부진한 성적을 내고 말았다. 그러나 스쿼드가 단단해지면서 우승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났고, 인천은 2023년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코리아컵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직전 시즌 리그에서의 활약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인천은 32강을 건너뛰고 16강부터 경기를 치르게 됐다. K리그2의 경남 FC와 첫 경기를 치른 인천은 로테이션을 결정했는데, 상대 경남 역시 로테이션을 선택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한 인천은 전반에만 음포쿠, 홍시후, 정동윤이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무난하게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인천을 가로막은 상대는 바로 같은 리그 팀인 수원삼성이었다. 비록 리그에선 부진했지만, 수원은 전통적인 강호였고 인천과의 전적도 뛰어난 편이었기에 방심할 수 없는 대진이었다. 수원의 경기는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전반 23분 명준재에게 선제 득점을 내줬지만 전반 32분 에르난데스가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 종료 직전 명준재가 또 득점했지만 천성훈이 다시 균형을 맞췄다. 전반에만 서로 두 골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천성훈의 발이 또 불을 뿜었다. 천성훈은 후반 9분 역전골을 넣었고, 비로소 안정감을 찾은 인천은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4강까지 올라온 인천은 전북을 상대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8월로 예정되었던 경기는 2023 새만금 챔페리 콘서트 일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연기되었고, 당초 리그-코리아컵에서 전북과 2연전을 준비하던 인천은 동선이 꼬이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정이 11월로 밀렸지만, 시즌 막판의 인천은 많은 부상자와 힘겨운 일정을 버텨내야만 했다. 인천은 결국 전북과의 일전에서 1-3으로 패배했고, 우승을 향한 여정을 뒤로 미뤄야 했다.



대학 입학 첫해부터 U리그 15경기에서 15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했다.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1학년엔 대학 리그를 평정하고 곧바로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FIFA U-20 월드컵에서의 큰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와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골을 넣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이 선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UTD기자단 이 인천의 '슈퍼 루키' 박승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즌 초반부터 인천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다

박승호는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계속해서 선발 출전 명단에 들고 있다. 만 20세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주전급으로 감독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승호는 유용한 U-22 자원임을 넘어서서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다. 지난 시즌에도 5라운드 대구FC전에서 늦지 않은 데뷔전을 가졌지만 시즌 첫 경기부터 홈 관중 앞에 선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승호는 “작년을 돌아보면 1라운드 서울 원정과 2라운드 대전과의

홈 개막전 모두 W석 2층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그랬던 내가 이번엔 경기장 안에서 개막전을 치렀다는 것에 어느 정도 팀에서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시즌 초반부터 선발 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 1라운드 수원FC전 전반 초반에 박승호는 상대의 패스를 태클로 끊어낸 뒤 관중석을 향해 포효했다. 이날 경기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박승호는 “단지 쇼맨십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장에서 포효하고 기합을 넣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거침없는 돌파, 조성환 감독 덕분

“거침없는 돌파, 박승호!” 인천의 안영민 장내アナ운서가 홈경기 킥오프 전 외치는 박승호 소개 멘트다. 박승호는 공을 잡으면 웬만하면 뒤가 아닌 앞을 보고 거침없이 달린다. K리그 공격수들에게서, 특히 어린 선수에게서 보기 어려운 특성이다. 선수 본인에게 전진성의 비결을 물었다.

“선수로서 나의 성향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조성환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전진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감독님의 지시사항 덕분에 내가 프로 무대에서 전진성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성환 감독 덕분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경기장에서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박승호가 자신을 소극적인 선수라고 말한 것은 의외였다. 상대가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그의 태도와 경기 전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물었다. “긴장감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경기에 나서기 전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면서도 이 경기가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경기 전에 다지는 의지를 밝혔다.

박승호에게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최고 장점을 물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는 것이다. 또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저돌적으로 뛰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중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장점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상대방이 지쳤을 때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그런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두 번째 시즌, 프로선수로서 책임감 느낀다

박승호는 내년에도 U-22 규정에 적용될 정도로 아직 어린 나이다.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단계인 그에게 자신이 프로선수가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물었다. 이 질문에 박승호는 “이번 홈 개막전과

FC서울 원정경기에서 확실히 느꼈다. 인천 팬분들께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실 때마다 내가 정말 프로선수가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최근 인천은 박승호를 포함해 최우진, 김민석, 김건희 등 U-22 자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박승호는 어린 선수들이 활약하는 비결을 밝혔다. “각자만의 길이 있겠지만 경기를 뛰는 선수든 뛰지 못하는 선수든 모두 클럽하우스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 같다. 어린 선수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한다.”

이어서 개막전에 인천의 왼쪽 측면을 함께 책임진 2004년생의 유망주, 왕백 최우진과의 호흡은 어떤지 물었다. 박승호는 “축구 스타일은 둘이 정반대인데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 것 같다. 우진이는 나보다 더 저돌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진이가 전진했을 때 내가 공간을 메울 수 있고 내가 전진성이 부족해도 우진이가 전진성이 좋기 때문에 둘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인천에는 5명의 2005년생 신인 선수들이 입단했다. 프로 2년 차 ‘선배’ 박승호는 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언젠가 다 지나가니까 항상 성실하게 선수 생활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5명 중 가장 기대되는 선수를 물어보자 “마음 같아서는 5명 다 기대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한 명을 꼽자면 가장 먼저 명단에 포함된 백민규다. 감독님께서 잠재력을 보셨으니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 성장하고 싶은 슈퍼 루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초반 박승호의 활약은 인천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프로선수 경력 초반부터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것도 놀라운 포인트였다. 실제로 부상 전인 봄에 치른 경기들보다 부상에서 복귀한 가을에 치른 경기들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박승호는 프로 무대에 와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한 것 같냐는 질문에 부상 재활 기간을 언급했다.

“프로에 올라와서 처음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 U-20 월드컵에 가서 다친 이후에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경기력이 형들에 비해 많이 처진다고 생각한다. 따라가려면 경기력이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할 것 같다.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한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발전을 다짐했다.

어린 선수가 성장하는 데 베테랑의 영향은 지대하다. 박승호의 롤모델은 함께 인천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다. 롤모델인 무고사에게 들은 조언이 있는지 물었다. “비시즌 기간 태극 전지훈련 때 무고사가 득점을 위해 필요한 공격수의 움직임 많이 가르쳐줬다. 그 선수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며 무고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조성환 감독은 지난해 11월 올산을 꺾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승호는 향후 성인 국가대표팀에 승선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박승호는 조성환 감독의 평가와 국가대표팀 승선의 꿈에 관해 이야기했다.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팀 승선이라고 생각한다.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고 희망했던 꿈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팀에 간다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대표팀에 간다면 한두 번 뽑히는 선수가 아니라 매번 발탁되는 꾸준한 대표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말했다.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해 준 인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인천 팬들이 가득한 관중석을 보며 프로선수가 되었음을 실감한다는 박승호에게 인천 팬들 앞에서 뛰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는지 물었다. 박승호는 “지난 시즌 32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가 기억난다. U-20 월드컵에서의 부상 이후 복귀전이였다. S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팬분들께서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셨다. 그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희열감을 많이 느꼈다”며 인천 팬들의 격한 환영을 회상했다.

돌아온 박승호는 인천의 창단 첫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경기에 출전해 해외 구단을 상대로도 폭발적인 활동량과 전진성을 보여며 득점까지 기록했다. 국제 대회는 국내 리그와 어떻게 달랐냐는 질문에 “유소년 선수 시절부터 국제 대회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해봤다. 그래서 일본, 중국, 그리고 필리핀 가서 경기를 준비할 때 딱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다. 상대했던 팀마다 국내 리그와는 다른 신체 조건과 경기 템포가 있었다. 나라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했다.

박승호는 프로 데뷔 첫해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자신을 알렸다. 인천의 주전급 선수로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박승호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팀이 파이널A로 시즌을 마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공격포인트를 10개 이상 기록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부상을 조심한다면 충분히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승호는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인터뷰 도중 인천 팬들을 언급할 때마다 박승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 박승호에게 인천 팬들에게 전하는 말을 부탁했다. “작년에도 올해도 인천 팬분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다친 이후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렇게 한결같이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나 역시 그 응원에 보답해야 한다. 팀이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항상 감사하다”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글 = 이환희 UTD기자(hwanhee515@naver.com)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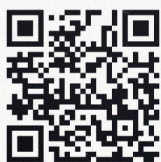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SINCE 2003



IUFC TV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더 깊고 다양하게 느끼는 방법!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